

# 이원재 제1차관, “한-인니 新수도 협력 확대하기로”

- 25일 인니 공공사업주택부 장관과 인니 신수도 개발 참여 논의 -

-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25일(월) 바수끼 하디물로노 (Basuki Hadimuljono)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도로분야 협력 등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  - 인도네시아는 '19년 8월 조코위 대통령의 수도이전 계획 발표 이후 지난 1월 신수도법 공포를 시작으로 3월 신수도청 신설, 6월 부지정지, 도로 등 기초 인프라 공사 발주 등 신수도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  - 우리나라는 인니 신수도 사업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갖고, 2019년 국토교통부와 인니 공공사업주택부간 수도이전 및 개발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여, 수도이전 경험 공유 및 전수 등 지속 협력해 오고 있다.
  - 이번 면담 자리에서 이원재 차관은 “한-인니 양국은 전문가 파견, 초청연수, 계획수립 지원 등 인니 신수도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”면서,
    - “현재 LH는 인니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\* 등 선도사업 참여를 검토 중으로, 우리 기업의 뛰어난 스마트시티 건설 기술을 적용한다면, 지속가능한 신수도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강조하며, 인프라 지원 등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.
- \* K-City Network('20~'22, LH)를 통해 누산타라(Nusantara, 신수도 명칭) 신수도의 「공무원주택 시범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」 완료('22.6)
- 바수끼 장관은 “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 공유 및 지원으로 신수도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”고 화답하며, “앞으로도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 줄 것”을 요청하였다.

- 또한, 이 차관은 “03년부터 ‘한-인니 도로협력회의’를 개최하여 도로 건설·운영·안전, ITS 분야 협력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”면서, “추가적으로 도로협력 사업들을 발굴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  
-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은 신수도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인니 신수도 개발사업에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.

2022. 7. 25.

국토교통부 대변인